

귀화 국민 첫 지방선거 출마

인도 출신 바수 무쿨씨 광주시의원 평민당 후보로 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귀화 외국인 지방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까?

인도 출신으로 귀화한 바수 무쿨(Basu Mukul·45·광주시 북구 중랑동)씨가 오는 6·2지방선거에서 시의원 또는 구의원에 출마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화민주당 광주시당은 23일 바수 무쿨씨를 다문화특별위원장에 임명했다. 귀화 외국인이 정당에 입당해 비례대표로 나선 적은 있었지만,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바수 무쿨씨가 처음이다.

지난 2000년 귀화한 바수 무쿨씨는 1989년에 요가 강사로 한국에 온 뒤 1992년 서울대와 이화여



이 있다"는 그는 "당시 김 전대통령이 친절하게 설명해준 덕분에 광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바수 무쿨씨는 "동구 운림동에서 현장스님이 운영하는 인도박물관에 가고, 아시아문화교류재단에서 자원봉사도 했다"며 "지금의 아내를 광주에서 만나게 된 것이 광주에 정착하게 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에 정착한 뒤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이주여성 및 남성, 유학생 등 외국인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계를 절감하기도 했다.

그는 "많은 외국인들이 자녀문제, 인권문제로 어려움을 겪지만 이를 제대로 전달해줄 수 있는 정치인이 없다는 생각에 평화민주당에 입당하게 됐다"며 "아직 정식 출마는 생각중이지만 가능한 외국인들이 광주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따라서 귀화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아온 바수 무쿨씨는 출마자격을 갖췄다는 것이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다.

한편 평화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26일 바수 무쿨씨의 다문화특별위원장 임명 및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1989년 요가 강사로 한국과 인연 반려자도 만나

"외국인노동자 복지·이주여성 문제 앞장 서겠다"

대 어학연구소에서 한국어를 배웠다. 그 뒤 서울대 종교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수료하고 고향인 인도로 들어가 유니버설 재단(Universal Foundation)을 세워 대체의학과 자연치유 등 정신 건강과 수행 문화를 연구·보급해 온 그는 2003년 요가강사로 다시 한국을 찾았다.

요가를 수행하면서 우간다·잠비아·케냐·호주·뉴질랜드·일본·중국 등 40여 개국에서 거주해왔던 그는 "요가 때문에 한국에 왔지만 현지 매력에 느껴져 귀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어·스페인어·일어·말레이시아어 등 7개 국어에 능통한 바수 무쿨씨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독거노인들을 돕는 자원

봉사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통역봉사를 하면서 차츰 한국생활에 적응해갔다.

그는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한국어가 굉장히 배우기 편했다"며 "김해 김씨의 시조인 김수로왕이 인도 아유타국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역사가 있어서 그런 지 한국이 제 2의 고향처럼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울산·익산·서울 등에서 요가강사로 일하다 지난 2007년 광주에 바수 무쿨 문화원을 열었다.

"지난 1994년 서울대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강의를 듣고 한국 정치인들이 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무관심한 지를 몰랐던 적



27일만에 수면위로

침몰한 천안함 함수인양을 위한 합체 바로세우기 작업이 완료된 23일 백령도 인양 작업 해역에서 천안함의 함수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함수 오른쪽 그물이 처진 부분이 절단면이다. /연합뉴스

천안함 함수 오늘 인양

바로세우기 작업 끝내... 故 박보람하사 시신 발견

서해 백령도 해상에 가라앉은 천안함 함수 인양준비 작업이 끝났다. 이에 따라 군과 민간 인양팀은 24일 오전 함수를 인양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군과 민간 인양팀 23일 오전 8시 40분부터 해저에 오른쪽으로 누운 함수를 물 위로 들어올리면서 바로 세우기 작업을 시작해 2시간 만인 10시 35분께 세우는 데 성공했으며 세워진 함수는 해저에 안착했다.

함수를 세우는 과정에서 오른쪽으

로 기울었던 함수에 적힌 천안함 고 함번호인 '772'와 함교 모습이 물 위로 드러났다. 함교 부분은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비교적 깨끗했고 76mm 주포와 40mm 부포도 온전했다. 하지만 마스트(수직으로 세운 기둥)는 침몰 후 조류에 휩쓸리면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됐다. 마스트에는 함해등과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달려 있다.

함체 무게는 594t이며 갑판 아래 1.

2층 격실에는 해수가 가득 차 무게가 1천384t에 이를 것으로 군은 추산하고 있다. 해군과 인양팀은 24일 오전부터 50t가량을 자연배수 방식으로 뽑아내 전체 무게를 1천t 이하로 줄여 인양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23일 정오께 해군과 민간인양업체는 크레인을 이용해 함미 침몰과정에서 유실된 연돌(연통)을 인양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박보람(24)하사의 시신이 사고 27일 만에 발견됐으며 현재 박하사의 시신은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 안치돼 있다.

한편 여야는 23일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여야 동수의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스폰서 물의' 부산지검장 사의

검사들의 항응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박기준(51·사법시험 24회) 부산지검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관련기사 3면>

박 지검장은 이번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상황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검사들의 항응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한 데 이어 23일 위원 8~9명의 인선을 끝내고 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산하기구인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검고검장)은 전날 파문의 진원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건설업자 정모(52)씨가 검사를 접대했다고 제기한 의혹을 조사했다. /연합뉴스

이산가족면회소 등
금강산 5개 부동산
北 당국 "몰수"

금강산 관광사업을 총괄하는 북한 내각 산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하 '명승지지도국')이 앞서 동결했던 금강산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등 5개 남측 부동산을 몰수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동결한다고 밝힌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명승지지도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미 동결된 남조선 당국 자산인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한국관광공사 소유인 문화회관·온천장·면세점 등 5개 대상을 전부 몰수한다"면서 "이는 장기간 관광 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대변인 담화는 또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화국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강산지구 안에 있는 현대아산 등 민간 소유의 부동산까지 모두 동결됨으로써,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이 12년만에 '사실상 종료'되게 됐다. /연합뉴스

호남예술제
접수기간
미술·작문 부문
5월 6일(목) ~ 13일(목)
http://art.kjmedia.co.kr
062-220-0541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워달라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전남 대표 막걸리 ▶ 3면 '오테크' 카드만 잘서도... ▶ 4면 웰빙여행 1번지는 ▶ 5면 Books ▶ 8·9면 독자와 함께 ▶ 13면 27일 화순 도민체전 ▶ 14면

광신미래아동병원
Gwangshin Future Children's Hospital

OPEN 한국미래아동병원